호주, 캄보디아에 밀수 청동불상 3점 반환

9~10세 참 왕조 제작 추정 유물
밀매업자 동료 증언이 결정적
유물 고국 반환은 세계의 모범
"전쟁 상처 치유 방법 중 하나"

김민재 객원기자


캄보디아로 반환된 참 왕조 청동 관세음보살상과 협시보처. 사진출처=호주 국립 미술관

캄보디아 남부에서 호주 수도까지 불법적인 경로를 떠돌았던 청동불상이 곧 고국으로 돌아간다. 지난 8월 2일 해외 주요 언론 '가디언' '뉴욕타임즈' 'ABC뉴스' 등은 호주 국립 미술관의 캄보디아 불교유물 반환 소식을 전했다.

최근 캔버라에서 열린 '호주-캄보디아 청동불상 인도식' 에서 호주 국립 미술관 관계자는 "역사적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면서 "호주와 캄보디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반환 의미를 전했다. 캄보디아 문화 예술부 대표 콩 비락도 "청동불상의 반환은 기적으로 세계의 모범"이라면서 "유물 반환은 전쟁으로 상처받은 국가가 치유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전했다.

현재 호주 국립 미술관이 소장한 청동불상은 30년 전 캄보디아 남부의 시골에서 발견된 청동 관음보살상과 협시보처 조각상 2점이다.

9~10세기 참 왕조에 제작된 것으로 2011년 호주 국립 미술관이 영국의 고미술품 밀수업자 더글러스 래치포드를 통해 150만 달러(한화 약 13억원)에 매입했다. 그 해 국립 미술관 연례 보고서에는 '참족(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오스트로네시아 민족)이 제작한 세 점의 청동불은 올해 매입한 가장 특별한 작품' 이라고 소개하며 미술관 소장품에 명성을 가져다주었다고 설명됐다.

호주 국립 미술관은 2014년 약 5,000점의 아시아 예술품의 출처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와 고미술품 밀수업자 더글러스 래치포드와 관련된 물품들에 대한 10년간의 조사 끝에 청동불상 3점이 불법 반출된 유물로 밝혀져 캄보디아로 반환을 결정했다.

래치포드의 동료이자 전직 밀수업자였던 툭 틱은 2021년 암으로 사망하기 전, 캄보디아 정부를 도와 약탈당한 유물 식별 및 반환 작업을 하며 생애 마지막 2년을 보냈다. 또한 이번 반환이 결정된 청동불상에 대한 래치포드의 밀수 및 밀매를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 '킬링필드(1960~70년대에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 당시 나는 크메르 루즈 소년병으로 당시 정부의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조직된 500명의 유물 발굴단의 지휘자였다. 밀매가 돈이 되기에 래치포드와 접선을 했고 그를 통해 캄보디아의 수많은 유물을 밀매했다"면서 "유물의 사진을 찍어 래치포드에게 보여주면 그는 원하는 것을 선택해 밀수를 지시했다. 야심한 밤에 유물을 불법 반출해 소 수레를 타고 태국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의 증언을 통해 값을 매길 수 없는 수많은 유물이 언제 어디서 약탈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졌다.

캄보디아 유물 반환 관계자는 "래치포드의 파일과 컴퓨터 기록에 따르면 200개의 참 왕조 유물이 툭 틱이 약탈을 증언했던 지역에서 가져와 박물관과 수집가들에게 팔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래치포드는 미국에서 금융사기, 밀수, 음모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2020년 사망했다. 그와 관련된 많은 유물들이 '불법 반출' 로 밝혀지며 미국, 영국이 그를 통해 거래된 캄보디아 유물을 반환했다.

네팔, 800년 된 〈반야경〉 정기 보수

윤달에 보수하는 전통 풍습


금니로 보수 작업 중인 〈반야경〉. 사진출처=ANI

지난 8월 1일 오만 일간지 '타임즈 오브 오만' 은 네팔 황금 사원의 반야경 정기 보수 소식을 전했다. 네팔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에 있는 황금 사원으로 알려진 콰 바하(Kwa Baha)사원에서 800년 전에 제작한 〈반야경〉의 정기 보수 작업에 돌입했다. 해당 경전은 패엽 경식으로 제본되어 있으며 란자냐 문자(Rañjanā: 11세기 발생한 브라흐미계 문자)가 금니(金泥)로 쓰인 금사경(金寫經)으로 말라 왕조(1201~1779년) 중 아바야 말라 왕의 재위 기간(1216~1255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경전 보수 팀의 헴 라트나 비라차르야에 따르면 "반야경은 매일 황금사원 예불에 사용하고 있어 금니가 벗겨지기 때문에 윤달이 낀 해마다 정기 보수 작업을 진행한다. 태양력이 365.25일, 태음력이 354일로 매년 11일 1시간 31분 12초의 간격이 있어 매년 이 차이가 커짐에 따라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음력의 달을 '말라-마스 ' 또는 '푸루소탐 마스' 라고 부른다. 말라 마스에는 법회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부터 경전 보수 작업을 진행하곤 했다. 이 전통에 기초하여 올해 반야경 보수 작업에 돌입했다.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황금사원의 경전 보수 팀은 매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반야경 독송을 마친 뒤 3시간 30분간 경전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반야경 전체를 금니로 덧쓰고 있으며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 된 경우 네팔 전통 종이인 '록타' 로 경전을 복원한 뒤 금니로 사경을 한다.

록타는 네팔리 카가즈(Nepali kagaj)로 알려진 네팔 전통 종이로 네팔 고지에서만 자라는 자생종 다프니 관목 섬유질로 만들어 쉽게 찢어지지 않고 금니를 유지하는 특별한 능력과 더불어 흰개미와 부패에도 강해 네팔 고대 종교 경전 및 법전에도 사용되었다. 비라차르야는 "보수에 사용하는 네팔 전통 금니는 미세 금분을 뜻하는 네와르어 '촐로' 라고 부른다. 촐로는 얇은 판자 형태를 띄고 물에 용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마씨를 사용한 특수 접착제를 미세 금분과 함께 배합비에 맞춰 만든다.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만이 촐로를 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수의학과 불교 만남…수의사 스님 에세이 '화제'

수의학 전공한 비구니 신쿄 스님
"생명 순환 불교 메시지 전하고파"


불교와 수의학의 접점에 대해 책을 쓴 하나조노 신쿄스님.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수의학과 불교라고 하는 접점이 적어 보이는 두 가지를 잇는 에세이집이 일본에서 출간돼 화제다. 심지어 책을 쓴 이는 15세기부터 이어온 종단에서 차기 종정에 예정된 비구니 스님. 지난 8월 5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은 책의 저자인 하나조노 신쿄 스님과의 인터뷰를 특별 보도했다.

지난 4월 출간된 에세이집 〈살아있는 것들과 불교의 이야기〉는 일본 불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정토진종의 분파인 진종흥정파(眞宗興正派)의 차기 종정, 하나조노 신쿄 스님의 책이다. 진종 흥정파는 15세기부터 이어오는 유서 깊은 종단. 교토의 코쇼지(興正寺)를 본산으로 하고,소속사찰은 일본 전국에 약 460개소, 신도는 약 3만 6000명으로 집계된다. 종정인 문주(門主)는 세습으로 계승되어 신쿄 스님은 현재 문주인 하나조노 신쇼 스님의 장녀. 지난 2017년 4월 차기 문주를 뜻하는 사법(嗣法) 법계에 취임했다. 이후 문주로 취임하면 여성으로서는 해당 종단에서 15세기 이래로 두 번째라고 한다.

스님은 인터뷰에서 수의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다. 항상 머무는 절의 경내에도 길고양이나 너구리가 자주 보였고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에서 동물들을 보는 것에 흥미를 가지면서 수의학과 진학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오히려 "대학 재학 중에는 별로 불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교토에 돌아와서야 불교와 수의학의 접점을 생각하게 됐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불교와 수의학의 가장 큰 접점에 대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불교와 수의학의 가장 큰 접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이든 다양한 장기가 몸 안에서 서로 도움으로 살아있다. 또 외부적으로는 서로 음식이나 환경이 순환하면서 균형을 맞추게 된다. 생명의 순환은 불교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며 에세이를 통해 전하고 싶은 점을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글을 쓰는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로 대학 3학년 때 실습을 위해 식육처리장을 찾은 경험을 꼽았다. 해당 실습은 선택제로, 8할 이상의 학생은 가지 않았지만 스님은 "이런 일이 없으면 평생 그런 장소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해 굳이 실습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 경험을 통해 "모든 생물은 다양한 생명의 희생 위에 성립된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보았다. 불교도라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율에 불살생계가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통감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요즘의 사회는 '나 혼자 살아있다' 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룬다. 많은 분이 이 책을 통해 그 점을 좀 더 생각하고 사찰이나 스님들과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듣는 인연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여성 출가자 최고 학위 시험 진행

올해 역대 최다 응시 인원 기록


게쎄마 시험을 진행중인 티베트 비구니 스님. 사진출처=티베탄 리뷰

티베트 불교에서 모든 교학과정을 마친 출가자에게 주어지는 학위인 '게쎄' , 혹은 '게쎄마' . 이중 여성 출가자들에게 주어지는 게쎄마 학위 시험이 인도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5일 '티베탄 리뷰' 는 게쎄마 학위 시험의 이모저모를 보도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최단 7년, 최장 20년에 가까운 교학과정을 마치고,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스님들에게 켄뽀, 로쀈, 게쎄와 같은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중 게쎄는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중 하나인 겔룩빠 종단에서 수여하는 것으로, 그동안 비구스님들에게만 허락됐으나 최근 사미니와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그 문이 열렸다. 비구 스님들의 학위를 게쎄라고 부르는데서 여성출가자들에 대한 학위는 게쎄마라고 불린다.

티베탄 리뷰는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TNP)' 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여 "올해 티베트 불교의 여성 출가자 132명이 게쎄마 시험에 응시했다. 역대 최다 응시기록"이라고 밝혔다. 비구 스님들의 게쎄 학위 시험과 동일하게 엄격한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진행되는 이 시험은 총 4년이 걸리며 매년 한 분기마다 시험이 진행된다.

계쎄마 시험에 응시하려는 스님들은 강원에서 인명학, 아비달마, 반야부, 중관, 계율의 5대부의 경론들을 모두 익히고 각 강원에서 진행되는 필기와 구술시험에서 최소 75%이상의 달성도를 얻어야한다.

TNP측은 "지금까지 54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이 학위를 취득했다. 게쎄마 학위를 통해 티베트 불교의 여성 출가자들은 여성들에게 불교강사나 불교 지도자등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0월16일 출발~20일 도착(5일 일정)

동참금 | 148만원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으로 이동
▶5일 : 북경–북경공항–인천(대한항공)



인도 성지순례 10일과 11일 출발일정

동참금 | 270만원~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1차) 10월 28일 출발~11월 07일 도착(11일 일정)
▶2차) 11월 18일 출발~11월 28일 도착(11일 일정)
▶3차) 12월 26일 출발~01월 04일 도착(10일 일정)
▶4차) 01월 13일 출발~01월 23일 도착(11일 일정)

아잔타 석굴 포함 인도성지순례 15일

동참금 | 370만원
일 정 | 인천–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보팔–산치대탑–아그라–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케사리야–바이샬리–나란다대학–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사르나트–델리–인천
▶10월 17일 출발~10월 31일 도착(15일 일정)
▶12월 26일 출발~01월 09일 도착(15일 일정)
▶01월 16일 출발~01월 30일 도착(15일 일정)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